

# 다산포럼

김민환



국회 결의를 거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기구가 구성되었다. 이름이 거창하다. 언론의 역사를 공부해 왔지만 미디어분야에서 이런 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큰 이름 뒤에는 두 가지 과제가 버티고 있다.

첫째, 이 기구의 역할에 대한 과장이다. 사람들은 이 기구가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세세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까지 추진할 것으로 착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구가 할 일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해 한 달여 동안 논의하는 데 국한된다.

둘째는 기구 구성에 대한 과장이다. 국민위원회라든가 국민의 대표기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마련이다. 위원을 주요 정당에서 추천했으니 국민의 기구라고 내세울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구는 주요 정당의 대리인으로 구성했다. 국민의

대표기구가 아니라 정파의 대리기구인 셈이다. 학계에서 각 정파의 노선을 대변할 학자를 몇 분씩 앉혀두고 그 나머지는 전문력이 막강한 재야 외곽단체나 유관단체 관계자로 충원했다.

## 미디어 발전은 어디로 갈까?

원래 정치권은 뒤늦게 부풀리는 게 습성이니까 이름을 좀 크게 지었다고 해서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기구를 정파의 대리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기구 구성의 정당성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언론분야에 국한할 때 여러 기구를 정파적으로 구성

한지 오래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여야 정당이 위원을 추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신문발전위원회에도 정파가 추천한 이가 많다. KBS 이사회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구성한다. 같거나 비슷한 예를 들자면 그 밖에도 많다.

특정 정파가 추천한 이들로 기구를 구성하면 기구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하나를 알면 백을 안다지 않는가? 지난 KBS사태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때 KBS는 그야말로 정파의 대리전을 치르는 최전방이었다. 이사들은 체면도 논

리도 잊고 추천 정파에 충성했다. 이 사태를 통해 지식인사회의 알뜰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비슷한 일은 지금도 여러 기구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 기구를 정파적으로 구성한 뒤부터 정파성이 열은 지식인은 각종 기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기구 참여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싫어서 아예 입을 다물고 산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이름은 좋지만 이 기구의 전망도 낙관을 불러준다. 문제 자체가 풀기 어려운 것이라면 할 말이 없다. 신문사의 방송사업 경영을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인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답을 예비해 두고 있다.

과학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장벽을 마구 허물고 있다. 정보 유통에서 국경이 허물어졌고, 방송과 통신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있다. 그동안 신문과 방송을 결합하는 것을 완강하게 막아온 나라들이 두 매체의 장벽도 부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미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을 제한적이거나 허용한 바 있다. 이제 결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구가 토론을 통해 타협이 가능한 최선의 버전(version)을 내놓을 것 같은 예감은 들지 않는다. 여당은 낱말의 명분을 쌓고 있고 야당은 들로 나갈 체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구 위원들이 정파에 충성하다 보면 결말은 뻔하다. 쿠오바디스를 외친 사도 베드로 생각이 난다.

<그레대 언론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5월단체 일부 회원 폭력행위 유감스럽다

아시아 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이 결국 폭력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임낙평씨가 최근 옛 전남도청 앞에서 5월 관련 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임씨는 옛 도청 앞 철탑에서 농성중인(주)로케트 전기하고 노동자들을 방문했다가 인근에서 농성중인 5월 단체 회원들로부터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

이들 회원들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임씨가 도청별관 철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데 대해 평소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중 농성현장인 옛 도청을 찾은 임씨를 보고 자신들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마 해서는 안 될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일부 5월 단체의 폭력행위는 이 유를 불분하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사건 직후 5월 단체 관계자가 우발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가 폭력

을 휘둘렀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오랜 세월 자신들과 함께 5·18의 진실규명과 민주화를 위해 함께 일했던 임씨를 도청별관 철거와 관련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현안과 갈등을 대화나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야말로 5월 단체들이 가장 경계해 왔던 구태였지 않은가. 이번 폭력행위에 관련된 일부 5월 단체 회원들은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다수 광주시민들은 최근 별관철거를 둘러싼 추진단과 5월 단체의 법정비화 조짐으로 격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추진단과 5월 단체들은 대화와 협상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얽혀 있는 별관철거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 사실로 드러난 申 대법관의 재판 관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신 대법관이 "사실상 재판에 관여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또 "촛불사건 배당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해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불 소지가 있다"며 신 대법관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합헌·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임할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불 소지가 있다"고 결론 냈다.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법행정의 한계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조사단은 또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불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해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났다.

우리는 이번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논란이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사법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재판 독립권이 보다 확고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지켜내지 못했음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사법부에 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신 대법관도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법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용퇴하는 것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정정화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

## NGO 칼럼

김연술



우리가 느끼는 불기운은 봄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혹독한 겨울에 땅 밑에서, 나무껍질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준비해 온 결과물이다.

우리 국민은 1960년대에 시작하여 거의 50여 년간을 가난을 물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경제의 속도전과 같아서, 다른 나라와, 직장 동료와, 심지어 가족 간의 치열한 경쟁이었다. 그러나 그런 치열한 치열의 결과로 경제적 풍족함을 얻었지만, 50여 년 동안 쌓아 올렸던 번영이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고, 한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하게 세월의 때가 묻어있었다. 현대 건축가들이 가우디가 남겨놓은 설계모형대로 시공을 계속하고 있어서 내부에서도 시끄러운 소음과 상상력으로 채워야 하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았으나 기둥 하나도 직선이 없고 거대한 나뭇가지 형태로 올라가고 있어서 그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이 느껴졌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노조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입장료 수입이 많은 액수를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25년 후면 완성되리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완성되지

## 느리게 산다는 것

신기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온 나라를 안개처럼 덮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속도에 밀려 내공을 채우는데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2월에 다녀온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미리아 성당을 떠올렸다.

노동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제공해준 그 도시에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성금을 모아 시작했다는 말이 놀랐고, 어려운 여건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도 그 제안을 받아들인 가우디의 마음에 놀랐다.

그는 1883년에 설계를 시작하여 조금씩 모이는 성금으로 예술혼을 다 투여하여 일에 전념했고, 1910년부터는 성당의 작업실에서 빵 한 조각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부어 자신의 분신을 건축해 나갔다. 1926년, 75세에 전차에 치어 죽었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는 몇 개의 동전이 전부였고, 허술한 차림으로 인해 운전기사에게 구박당하는 꼴을 보았다고 한다.

내가 본 그 성당은 126년 동안 짓고 있었기 때문에 돌들의 표면이 거무스름

도 많은 건축물을 위해 한해에 300여만 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바르셀로나를 찾고 있고 그것은 스페인을 세계 최대 관광 수입국으로 만들어 놓는 데에 기여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당장 성과를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페스트(빠른)시대에 대한 우려로 스로우(느린)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세계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화석연료가 70여년 후면 바다가 난다고 한다. 그에 버금가는 대체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은 느린 생활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대단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온 세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금전적 부는 '빠른'생활을 보장해 주고, '가난'이 느린 생활을 대신하는 말로 쓰이는 이 시대에, 가우디처럼 백 년 앞을 내다보고 묵묵히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느리게만 자신의 생애를 걸 수 있는 목표를 찾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음악협회 광주지회 고문>

## 기고

이정삼



황사는 요즘과 같은 봄철이면 몇 번씩 겪어야 하는 불청객으로 한반도에 물러오는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 내몽골구(內蒙古) 고원이 37%, 황토고원이 19%, 몽골 고비사막이 24%로 중국과 몽골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근원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무분별한 개발로 전 국토면적의 11.6%(남한면적의 17%)가 이미 사막화되고 몽골 역시 기후변화와 유목민들의 과도한 방목 등으로 전 국토의 40% 이상이 사막화된 상태로 중국과 몽골지역에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

에는 항공기, 자동차, 전자장비 등 정밀 기계에 장애를 일으키며 햇빛을 차단, 농작물이나 활엽수의 광합성을 저해하고 식물의 기공을 막아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황사가 발생하면 가정에서는 가습기 외출을 삼가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한다.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 자체를 하고,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 등 농수산물들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하도록 해

## '황사 테러'에 내 몸 지키는 지혜

면서 황사의 발생지역과 그 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80년대 3.9일(연평균), 90년대 7.7일, 2000년대 12.1일로 황사 발생 빈도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그 피해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발원지에서 시작한 불청객의 황사는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데 이고도, 상층기류의 속도에 따라 다르나 평균 2~8일이 소요되며, 성분은 모래와 같은 규소가 대부분이나 토양 자체에 함유된 철, 망간 등 중금속과 미생물 외에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도시나 공업지대 상공을 지나면서 황산염, 질산염,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이 섞여 대기의 먼지량이 평균 4배나 증가한다.

황사의 먼지농도는 약 200~500µg/m³ 이나 지난 2000년 3월 23일 발생한 황사는 대기 중 시간 최고먼지농도가 약 1천100µg/m³로 연평균 먼지오염도(64µg/m³)의 17배 수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황사먼지 속의 미립자는 사람의 호흡기관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눈에 붙어 결막염, 안구 건조증 등의 안과질환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아 한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지하시설·대형 건물 등 관리기관에서는 여과장치 정비 등 실내에 황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이나 시설원에사업장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외부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하고, 식품가공 및 제조업에서도 불량품 방지를 위해 청결을 유지하며, 공사장 등에서는 먼지 발생작업 중단 및 실외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황사가 심해지면 하루에 7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잘 배출되고, 특히 기관지와 인속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희석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꾸면 황사도 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황사철에는 몸 안에 쌓인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인 '디톡스 푸드'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황사 발생시 과일과 채소 등을 충분히 씻어 먹고 길거리 음식을 멀리하는 것도 '황사 테러'에서 몸을 지키는 지혜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

## 무늬만 그린푸드존 ... 불량 식품 단속 강화했으면

학교 앞 200M 안에서는 그린 푸드 존이라고 해서 유해 불량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등 하굣길에 문방구 등지에서 간식거리를 사먹기 일쑤다. 각종 튀김 음식과 조리 음식 등이 비위생적으로 마구 판매되고 특히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는 음식과 사탕류 같은 과자류를 잘 사먹기 때문에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제품에도 문제가 많지만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즉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튀김류의 경우 어떤 기름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튀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얼마전 TV에서는 유명 튀김닭 프랜차이즈점에서 닭을 튀기는 기름을 수십 번 계속 사용하고, 그 때문에 튀김닭의 색깔이 나빠져서 그런거는 아예 양념통닭으로 바꿔버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불량식품 유통은 우리가 근절시켜야 할 대표적 사회악이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알뜰한 상술이 먹혀 들지 않도록 관계 당국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업주들도 이왕 아이들을 상대로 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위생상태를 제대로 갖춰 판매하기 바란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 승마, 재활치료에 효과 ...마(馬)산업 육성해야

재활승마는 말을 탐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신운동의 효과가 있으며, 심폐기능, 근력 강화 등 신체적 효과와 함께 사회성을 키워주는 데 탁월하다.

재활승마는 말을 탐으로써 3차원적 움직임을 이용해 기증자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에 도움을 주는 치료방법이다. 또 말과 교감하면서 정서적 안정감도 높이고, 장애아들이 자신감을 갖고 의사소통이나 사회성이 높아진다. 지금 미국, 영국, 호주 등 전세계 51개국에서 연간 500여 만 명이 재활승마치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활승마 참여자가 전국에 겨우 200~

300명에 불과하며 현재는 재활승마 기회의 의료혜택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재활승마를 우리 광주 전·남북에서 적극 유치하고 발전시켜 사설 마장과 지역병원이 연계해 운영했다면 좋겠다.

재활승마 인구를 늘리고 말 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말 육성 농민 단체와 유관단체들이 협력해 그 역량을 더 키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학회, 장애인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재활승마치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활승마 참여자가 전국에 겨우 200~

## 無 等 鼓

최근 우리나라 언론에 모처럼 굿 뉴스(?)가 등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어린이들은 한국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연간 1개월이나 적다.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아 아 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타거나 활자화됐다.

오바마의 일성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당국자는 "그것 보라"며 어깨를 으쓱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오바마 발언의 속내를 더 들여다 보면 해석은 사투 달라진다. 오바마의 메시지는 미국의 어린이들이 하나의 온전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완벽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바마의 발언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마련된 대안들이 당파의 의견차이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마는 자신이 관찰하려는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반대 당파에 경

종을 울리기 위해 한국의 교육열을 동원했다는 해석도 있다.

자타가 인정하듯이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점이 아쉽다.

한국 고교생의 하루 총 학습시간은 무려 15시간이 넘는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 이후 귀가하더라도 곧바로

잠들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고교생의 정규 수업시간은 훨씬 짧다. 남은 시간엔 동아리활동이나 자기개발에 충실한다.

한국과 미국의 교육 여건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오바마의 일침을 놓고 한국인들이

반색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뜯어보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오바마가 무턱대고 한국을 따라가자는 착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아전인수로 잠깐 우물거렸을 한국사람들의 '착시현상'에 무게가 쏠린다.

/박치경 정치부장unipark@kwangju.co.kr

## 오바마의 착각(?)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 F A X 227-0118 >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 회 1 부 2200-641	여론매체부 2200-679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1 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222-4267 >	사 진 부 2200-691	< F A X 02-773-9335 >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